

2016년 10월 6일, 제주시 봉개동 동회천마을회관, 김선희 조사.
신준희(여, 1930년생, 제주시 봉개동)

[조사자] 할머니 여기 도체비는 안 나랏수과?

[제보자] 도체빋불? 그런 말은 나...

[조사자] 도체빋불은 안 봐랏수과.

[제보자] 도체빋불은 봐나긴 해연.

[조사자] 아이고, 도체빋불도 봐랏수과?

[제보자] 응. 나이, 그 역적수울 물 질레 아침 세벙이 저, 침침한 날인디 7슬 땀디 침침한 날엔디. 7슬 때가 아니고 봄이로구나.

[조사자] 예.

[제보자] 물 질레 나가는다, 밤이 훈 네시건 됴든 아니 훈 세시만 됴든 그디 물을 강 두어 번 강, 멀어노난에 두어번 강 질어동 강 밥을 허주게. 애기 돌아놓고 밥허젠 해가든 막 바빠, 바쁘난. 물을 질레 아침 세벙이 나아정 물을 질레 가단 보난, 전 웬당 알아지카? 웬당

[조사자] 예? 원당봉마썸?

[제보자] 신춘 조꼇디.

[조사자] 예, 알아집니다.

[제보자] 그 웬당 넘은 딜로 무신 이만이 현 초롱불, 초롱이 이만현 게 별랑별랑 와가난, 아, 저건 요기 동색이 할아버지 밧 시난에 밧디 무신 지들커 덕을 거 시난에 비왓직허난에 덕으레 왔인가. 어우에 나가 요만이 간디 그냥 어염들에 바싹 기냥 파랑한 게 이만이 현 게 별랑별랑 허난. 아따 나 모르겠다 그냥, 콧으로 니를 그냥 꼭 찢르난 피가 짝 난 거라.

[조사자] 예, 예.

[제보자] 게난 그 피가 나오난 엇어져 불언.

[조사자] 경 해야 하는 거봐? 도체빋불을 보면 영 피 내와야 돼어?

[제보자] 피 내와야주게. 도체비는 사름 놀 피 나와 불민 엇어진댄.

[조사자] 아. 놀 피 나오민 엇어진댄 마썸?

[제보자] 응. 옛날 그런말 잇어났어.

[조사자] 경 행 일부러 피 내왔수과?

[제보자] 응. 닛굽으로 딱 깨물앙 피가 나오니까 도체비 어느새라 간질 알앙 어디사 가빈 지 몰라.

[조사자] 아아.

[제보자] 탁 앞이까지 둘앙 오당. 근디 그때도 경 막스와 베지도 안 헤고. 도체비다 허명도. 아이고 딱 헉게시리 니빨을 딱 그치난 그자 피가 픽허게 난. 거자 엇어져 불연. 게난 아이고 도체비구나. 집이 오란 아장 그 말 곱아낫주게. 아이고 도체비 영 행 피 내오난 엇어젼저게 곱아낫주게. 나 잇당도 곱아져. 어디 놀래 가난도. 나 경 현 거는 봐나서. 파랑현 게, 등알등알.

[조사자] 파랑한 불예?

[제보자] 그 진드르 벵디레 이 새미가랑더레여 영 소낭빋 그디 신디. 영영 와 가난 아. 동섹 이 하르방이렌 현 건 이디 살아난 하르방 그디 빋 시난에 그거 덩으레 왔구나. 초담은 경 생각을 헛인디. 어우에 그냥 그디 보딘디 와가. 아, 저거 도체비다 헤연.

- 핵심어 : 도체비, 도체빋불, 웬당, 원당봉, 벌랑벌랑, 사름 놀 피, 닛굽, 곱, 등알등알, 진드르